

## 삼성 (이건희 회장) 상속세 납부 결정

### # 현재 상황



삼성그룹의故이건희 회장은 201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2020년 10월 25일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 별세 소식이 전해진 후 삼성그룹의 차기 회장은 누가 될 것이며 **상속세 납부금액과 납부방법**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

### 고 이건희 회장 상속 재산 및 상속세 추정

삼성전자	2억 4927만 3200주	<b>약 19조원</b> 상속세 <b>11조 366억원</b>
삼성전자 우선주	61만 9900주	
삼성생명	4151만 9180주	
삼성물산	542만 5733주	
삼성SDS	9701주	
미술품	<b>3~4조원</b> 추정	<b>상속세: 1~2조원 추정</b>
부동산		
현금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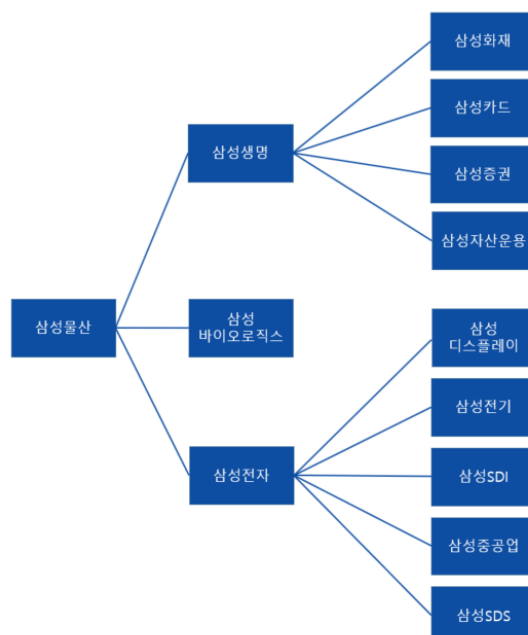
〈자료: 금융감독원 및 재계 추산〉

故이건희 회장의 **상속세 납부 대상 총자산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정**됩니다. 주식에 대한 **상속세 약 12조 원**은 5년간 분납, 1조 원은 의료 및 사회공헌 기부, 5조 원 이상의 미술품은 기증하기로 발표했습니다. 특히 12조 원의 **상속세 납부**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.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,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습니다.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보다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것이 납부 상속세가 최고 수준인 이유로 보입니다.

## # 삼성그룹 지배구조



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 **삼성물산 17.48%, 삼성전자 0.7%, 삼성생명 0.06%**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故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분은 **삼성물산 2.88%, 삼성전자 4.18%, 삼성생명 20.76%**입니다. 해당 지분의 **상속방법에 따라 삼성그룹 실질적 지배회사가 변경될 수** 있습니다. 지배구조 변경에 변수는 **"삼성생명법"**입니다. 보험사의 재무지표 평가를 위해 **계열사 주식가치 반영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하자는 의미**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입니다.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**총자산의 3%가 초과하는 지분은 법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처분**해야 합니다.



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**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기업은 삼성물산**입니다. 삼성물산은 **삼성전자 5.01%, 삼성생명 19.34%, 삼성바이오로직스 43.44%**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**삼성전자**는 비상장 회사인 **삼성디스플레이 지분**을 **84.78%** 보유하고 있고, 상장사인 **삼성전기 23.69%, 삼성SDI 19.58%, 삼성중공업 15.98%, 삼성SDS 22.58%**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. **삼성생명은 금융관련 기업의 지분을 보유**하고 있습니다. 비상장 회사인 **삼성자산운용의 지분**을 **100%** 보유하고 있습니다. 상장사 지분보유 현황은 **삼성화재 14.98%, 삼성카드 71.86%, 삼성증권 29.39%**입니다. **지배구조의 변수가 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는 8.51%**입니다. 삼성생명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5.51% 약 4억 주(20조 원)를 처분해야 합니다.